

순천 화포어촌마을, 불법토목공사로 '시름'

산림훼손·폐콘크리트 불법투기로 환경피해 심각

바람 불 때는 비산먼지·비가 올 때는 토사유출

순천만습지와 함께 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순천화포어촌마을에 불법개발로 인한 산림훼손과 토목공사로 인한 폐콘크리트 불법투기로 환경피해가 심각해 어민들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순천별랑화포어촌마을 뒤 토목공사 현장은 수개월 방치되어 있어 민둥산으로 변해 바람 불 때는 비산먼지와 비가 올 때는 토사유출로 청정바다의 해양오염을 우려 하면서 정답던 옛 모습이 사라지고 매일같이 어민들 걱정이 많다고 화포마을 이장 김 모씨가 밝혔다.

불법토목공사는 작년 11월~12월 경 발목을 하고난 후 토목공사를 시작 하면서 외부에서 폐콘크리트를 투기 하는 공사가 벌어졌다.

불법으로 공사를 주도한 A씨는 투

기한 폐콘크리트는 '순환골재'라고 주장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보여져 순천시청과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보 하면서 알려졌다.

공사 현장에 대해 순천시 청소과 입장은 "공사 사업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불법공사로 확인된 지난 3월24일 1차 과태료 1백만원을 처분하고 추후 과태료 처분도 2차와 3차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화포 마을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해당 현장을 두고 민원해결을 요구 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장을 듣지 않고 토지구 A씨와 아버지가 불법토목공사에 대한 책임만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 했다.

불법으로 시작한 공사는 폐기물법 48조 위반으로 순천시의 형사고발까



지 이르게 되었고 지난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구인 아들이 아버지가 공사를 주도 했다고 피고발인 변경요청으로 조사 지연되고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사를 하였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담당주무관은 "순천만을 두고 있는 화포어촌마을은 이번 불법공사행위에 대해 행정력과 형사고발을 총동원해서라고 철저하

게 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토목공사한 A씨의 입장은 "당시현장에 넣쿨과 진드기로 소나무에 해를 끼치고 주민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줄 것 같아 벌목 작업과정에서 순환골재로 지반을 다져 놓았다"면서 "순천시에서 지적하고 있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며 동네주민들에게 뒤늦게나마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조영기 기자

보성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지난 13일 경찰서장실에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과 보성지역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의 건강성 성장을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강성규 전남북부권 아동보호 관장은 "경찰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큰 힘이 된다"며 경찰의 역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임규 서장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면 아동이 잘살고 지역이 편안할 것이다"며 학대아동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완도해경-완도경찰-완도소방, 3자간 업무협약식 체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와 완도경찰서(서장 최승희),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 3개 기관이 국가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보·안전·치안·환경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3일 완도해경서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3개 기관장과 각 과장들이 참석하여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에 분산된 국가자원인 감시 시스템과 인력·장비 등의 효과적인 융·복합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기관 간 총력 공동 대응 체제 시스템을 마련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 내용으로는 ▲ 밀입국, 의사선박 및 적 침투에 대한 강화 등 국가적 안보 위협 상황 발생시 합동 대테러 작전 ▲ 실종, 강력범죄,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 교통사고, 범죄피해 등 응급환자 발생시 원스톱 응급서비스 체제 구축 ▲ 구조·구급·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인력, 장비 지원 등 총 11개 분야로 이루어 졌다.

완도=이민혁 기자

광주 동부소방, 학동 재개발 지역 찾아 방화문 개방훈련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 최근 오전 구조대원과 생활안전대원을 대상으로 학동 재개발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문 파괴·개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이용한 방화문 등 잠금장치 개방 및 안전조치를 통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건물 내 진입 능력 향상과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방화문 파괴기구 등을 이용한 잠금장치 개방 및 해제, 동력절단기 등 절단 장비를 이용한 개방, 건물 내 방문개방 및 창문 해제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3개 팀으로 나눠 방화문 개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윤희 기자

무안소방, 롯데아울렛·마트 남약점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15일부터 전남 서부권 초대형 쇼핑몰인 롯데아울렛·마트 남약점과 함께 무안 군민 대상 소방안전 홍보의 일환으로 쇼핑, 놀이, 체험을 한 곳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한다.

소방안전 체험공간은 3개의 체험존으로 운영하며, 심폐소생술을 혼자 연습해 보는 셀프연습대, 보이는 소화기 체험, 우리 군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작품 전시회, 어린이 방화복 입고 소방차·구급차 모형에서 사진 찍기 등 어린이 중심 소방안전체험교육 장소와 체험에 있어 방역 준수, 체험 피로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별도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중 5.5 어린이날은 전남3호 아동안전체험차량을 광장에 배치하여 지진 발생, 화재 비상 탈출 등 각종 체험과 안전 선물 꾸러미를 배부하여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사무소 n차 확진자, '광주시 민관협치 출범식' 참석



광주시 민관협치 출범식

최근 광주시장과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 수 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광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시청 시민회에서 이용섭 시장과 민관협치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시민단체

관계자 A씨가 협의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A씨는 행사 참석 사흘 만인 이날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담양연락사무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위 'n차 감염자'다.

발대식에는 공동의장인 이용섭 시장과 류한호 광주대 교수를 비롯

광주시 방역 '초비상'...시민단체 관계자 출범식에 참석

시장·시의회·공무원 등 100여 명 모여...이용섭 시장 격려

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장 실·국장, 광주시의원, 일반 시민, 9개 분과장 등 협의회원 49명을 비롯해 수행원과 행사 관계자, 취재진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다행히 참석자들은 모두 공식행사 중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사는 30분 남짓 이어졌고, 참석자 중 상당수는 A씨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용섭 시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담양 모임 참석자들이 지난 7일 이후 여러 행사와 모임을 치르는 과정에서 n차 감염이 늘고 있다"며 "관련 확진자의 동선 등 점점에는 유흥주점, 식당, 주점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확한 동선 파악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담

양사무소 여직원 남편(전남 982번, 하남산단 입주업체 근무)이 지난 14일 첫 확진된 이후 나올 만에 관련 확진자가 30여 명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17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이계호 의원) 등이다.

담양사무소 홍보실장(988번)을 비롯해 수행비서(989번), 당원(990번), 또 다른 당원 부부(991번·992번) 등이 줄줄이 감염됐고, 광주에 사는 비서관, 첫 확진자의 배우자 겸 담양사무소 당직자, 담양 식당 주인 부부와 가족 등이 연이어 n차 감염됐다.

특히, 990번의 경우 광주에 사는 지인과 그 지인의 모친까지 3차 감염으로 이어졌고, 확진자들과 접촉한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바이러스가 퍼졌다.

담양=박종영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